



문화정령사의 유려보전

시바 벗어난 절... 삶 비추는 거울



<2> 절이 산으로 간 까닭

나는, 절은 산과 집이 자연 속에 함께 어울려 있을 때 참 맛을 느끼고, 숨기를 깨닫게 된다고 믿는다. 산과 절의 놓임새, 짜임새, 감동적인 절은 그 숨기가 절절히 넘치고 있는 것이다.

그날, 그 절은 그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다. 산길, 돌길, 돌길 수없이 굽어지며 산사를 찾아가는 길은 험하고 힘에 벅찬 것이었다. 나무숲 속으로 난, 때론 실길로, 때론 길 갈지 않은 돌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산길은 무성한 나뭇잎과 꽃의 향기가 산기(山氣)와 어우러져 마치 내가 산신령이 된 것 같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감동스런 오케스트라가 나를 산 속에 파묻고 마는 것이었다. 큰 바위, 작은 바위에 날게 날게 부딪치며, 빠르게 느리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 숨이 헐떡거리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쉬면,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는 그 상쾌함이란! 맞아, 이래서 산신령은 늙어도 죽질 않는구먼!

그러면서 올라간 산 위에 숨죽여 다소곳이 앉아있는 산사의 적목당(적목이라니), 햇마루에 걸터앉아 그야말로 적막(寂滅)을 음미하고 있었다.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소리가 싱그러웠고, 그리고 고즈넉이이런 곳은 풍경소리도 여찌 그리 압전(압전)하듯 알아들을 여윌거렸다. 그때, 내 곁에 앉았던 젊은 목사 한 분이 나에게 은근히 귓속말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 풍경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인생의 삶이 한 순간으로 모여들고, 훌륭히 삶이 깨우쳐와요. 그리고 설교 제목이 떠오르거든요(역시 젊은 사람). 나도 더불어 깨우친다. 그래, 깨우침이란 이런 거

신령한 기운 감도는
고요한 산사 풍경소리
훌륭히 인생의 의미
깨우쳐주는 생명수

언젠가나는, 내가 정말 감동을 받고 왔던 산사를, 사진을 같이 공부하는 몇몇 분들과 함께 다시 간 적이 있다. '감동적인 절'이라고 하면, 대개 불전이 그럴듯하고, 국보나 보물이 몇 개쯤은 있는, 그런 절일 것 이라고 지레짐작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오해다. 솔직히 난 절을 건축양식이나 무슨 문화재 같은 것으로는 잘 볼 줄 모르고-그런 건 학자의 몫(?)- 또 그렇게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정말 그런 '남의 안경' 끼고 보기는 딱 질색이다. 진짜 내 눈으로 잘 보기에 열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 받는 절이란, 그런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관계없는, 오직 절다운 절만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뿐이다.

야. 현대, 목사가 절의 풍경소리에 깨우친다? 혹은 스님 뉘 분이 잘못해서 독사 된 것 아니냐? 하긴, 그 목사도 스스로 그런 자책감(自責感) 때문에 자신없이(自) 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목사가 꼭 성경에서만 깨우쳐야 한다는 직선(直線)이 아닌 동역(동생)화(화)에 걸리게 하고, 의식의 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닐까.

나는 삶의 현장성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삶의 리얼리티.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내 소신이다. 삶의 리얼리티는 어느 한 순간에 집적되어, 우리에게 실존으로 자각되는데, 그것을 그 절은 목사는 산사의 풍경소리에서 체험한 것이다. 현대, 왜 하필이면 산사의 풍경소리일까? 항상 삶을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에 대한 체험이 늘 안으로 축적된다. 그 축적된 삶의 리얼리티는 안으로 안으로 부풀어 있다가 어느 때, 조금만 건드려도 씨앗을 터트리고야 마는 봉선화처럼, 산사의 풍경소리든 물소리든, 바람소리든, 삶의 리얼리티의 꽃씨를 기어코 터뜨리는 것이다. 그런 게 오도(勝道) 아닐까.

삶의 현장, 그것을 불교에선 고해라 했는가? 고해를 벗어난 적막(寂滅) 그것은 곧 우리의 내면을 맑게 비추는 거울이다. 말하자면, 산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는 명경대(明鏡臺)가 있는 것이다. 세속 속의 삶을 객관화시켜 실존적 자각을 하게 하는, 신비의 거울이 그 곳에 있는 것이다. 삶의 현장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삶의 깨우침이 있는 곳, 그것은 역시 산사였다. 그러므로 교회와 산사는 곧 하나라고 나는 믿는다.

산은 참 신령한 곳이다. 옛 우리네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다. 요즘은 서양물이 들어서 정복(정복)산하는 맛으로 산을 가지지만, 옛 우리네는 신령한 곳으로 들어가는, 삶의 한 부분이 산이었다. 말하자면, 우리네는 산을 영기(靈氣)가 가득 찬 곳으로 믿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산에 숨어 있는 절은 우리의 삶을 되살리는 약수이고, 약초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산소라 할까.

전 생<사진작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한글대장경 완간에 부처

불자 자긍심 심는 대불사

불교신앙의 출발점은 귀의(歸依)입니다.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굴레 속에 갇힌 자기를 버리고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것이 불자들의 목적이며 그 목적을 향한 첫발이 삼보(三寶)에 대한 귀의(歸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보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마저 겸허하게 귀의하지 않은 채 중생(衆生)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사에 있어 고려대장경의 조판에 버금가는 대장불사요, 문화적 공지와 자부심이며 제중생(衆生)의 성불을 위한 기본 소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밝게 열린 길도 가지 않으면 암흑입니다. 서 말의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한글대장경>도 법보(法寶)에 귀의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봉안하고 읽을 때 우리의 중생고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성불위한 기쁜 소식

이미 부처님의 법은 잘 설해져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수많은 부처님들이 밝혀 주신 법의 등불도 환하게 타오르고 있으며 역대 조사들이 삼보살(三寶佛)의 기상으로 꿰뚫어 보아신 자성불(自性佛)의 진면목(眞面目) 또한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자증(自證)하지 못하여 중생고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들이 진정으로 귀의하고자 해도 문자와 언어의 장애로 인해 접하지 못

동국역경원과 현대불교신문사가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 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한글대장경>을 통해 일체중생이 성불할 것을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한글대장경>을 사찰에 모신다면 불자들이 귀의할 법보가 여법히 구축될 것이며, 가정에 모신다면 향시 불보에 귀의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운연중에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 주어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사가 기획·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장경각'은 신앙성과 장엄미에 실용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작품입니다.

특별기고



송석구
동국대 총장

획·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장경각'은 신앙성과 장엄미에 실용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법히 살아가는 힘

사찰과 가정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존귀한 가르침이 생생히 담겨 있는 <한글대장경>을 장엄스러운 장경각에 봉안한다면 그 인연공덕은 반드시 깨달음의 대자유로 현현(顯現)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방의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한글대장경>과 '장경각'을 통해 무량선연(無量善緣)을 맺어 성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8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상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된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 011 SK Telecom
-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 016 한통프리텔
-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 019 LG Telecom
-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 017 신세기통신
-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 018 한통엠티넷
-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신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인생을 검색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신도간의 커뮤니티를 즐길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에 걸려진 30여 매뉴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